

조달청,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2026년 한국정책대상 ‘대상’ 수상

- 위기 징후 포착부터 해외 공급선 확보, 국내 신속 공급,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 대응
- 요소수 수급 불안을 막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

조달청(청장 백승보)이 추진한 ‘차량용 요소수 공급망 위기 대응 및 국가전략비축 체계 혁신’ 정책이 12일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석환)가 주관하는 ‘제15회 한국정책대상’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정책학회는 행정·정책학 분야의 선도적인 학회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을 발굴하여 한국정책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조달청은 요소수 공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수급 안정을 이끈 성과를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자 국제 원자재 시장과 국내 재고 상황을 점검하여 요소수 공급 위기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했다. 이후 관계기관 및 해외 공관과 협력하여 대체 공급선을 발굴하고, 베트남 현지 기업과 직접 협상하여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수입 물량의 선적 일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국내에 공급했다.

과거 저가 중심의 단일 공급망 의존으로 2021년과 같은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만큼 조달청은 공급망 다변화, 공공비축 확대 등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 요소수 부족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물류·산업 현장의 혼란을 예방했다. 또한 국내 중소 요소수 생산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원료 공급을 지원했다.

조달청은 이번 성과를 일회성 위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 정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알루미늄과 구리 등 핵심 원자재를 61일분 이상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비축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국제 원자재 가격과 수급 위험을 분석하고 위기 가능성을 조기에 예측하는 ‘지능형 전략비축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한국정책대상 수상은 조달 현장의 위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달청과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축하여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장	신동현	(042-724-7082)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박선옥	(042-724-7070)